

## 주제(主題)의 선택(選擇)과 응시(凝視) —2월 창작평(創作評)

현대를 사실의 시대라 하여, 많은 평가가 작가에게 시대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실의 세계로 침잠하라 권하고 또 많은 작가가 과연 사실의 세계에 뛰어들고 있다. 평가의 이런 제창이나 작가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대가 전에 없이 사실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시대요, 또 작품의 주제를 이루는 인간생활이 사실의 파편 속에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가가 사실의 세계로 침잠하라고 주장할 때, 피상적인 이해에서 사실의 세계에 뛰어들어 사실을 그리기만 하면 위대한 문학작품을 산출할 수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작가도 그리 믿고 사실의 세계에 표범(標幟)하며, 사실의 파편을 좇음으로써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본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우리는 평가의 사실의 세계로 침잠하라는 주장과 작가의 사실의 파편 속의 표범을 그대로 지지하고 시인할 수 없다.

위대한 문학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외의 시대에 있어서까지 독자를 감동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작품 속에 담긴 인간생활은 그 시대에 있어서 의의가 있는 생활일 뿐

아니라, 후세에 있어서까지 의의가 있는 생활이어야 하며, 따라서 위대한 작품을 제작하려면 작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를 가질 인간생활을 그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한 의의를 가진 생활이란 어떠한 생활일까. 그것은 결국 만민에게 공통한 사상·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생활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성에 뿌리를 박은 생활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작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생활사실이나 혹은 일시적인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생활사실을 언제나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들은 너무나 의미가 없는 생활의 파편과 일시적인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시대적 사실에 도취하여 사실의 분류 속에 아무 저항도 방향도 없이 그저 몸을 맡기고 있다. 이리하여 산출된 그들의 작품은 의미 없는 생활의 파편의 무질서한 나열이나, 일시적이며 말초적인 흥미를 자아냄에 그치는 생활의 단편의 세밀한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작품이 이와 같이 된 데는 그들이 무의미한 사실의 분류 속에 아무 방향 없이 방랑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또 한 가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소질의 하나인 응시력을 상실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응시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작가가 그의 제재를 밑바닥까지 투시하는 시력이다. 다시 말하면 한 제재의 온갖 의미와 위치와 탄 것과의 전 관련을 남김없이 주시하여 그 제재를 그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리고 영원적 양상에서 현출시키는 주의력이다.

우리 작가들이 이 응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좋은 제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고 믿고 너무나 사상만 편중했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은 인간생활의 추상과 개관 위

에 산출되는 것으로 인간생활의 전면적 질서와 기구는 어느 정도까지 밝혀 주나, 그대신 개개의 생활에서 생명과 개성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데 작가의 응시력은 개개의 생활을 그 의미와 위치와 그리고 또 단개개의 생활과의 관련 속에 발견하여 생활을 가진 구상적인 것으로서 현출시킨다. 그러므로 작가는 인간생활에 전체적으로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는 사상과 함께 생활을 부분적으로, 내면적으로, 구상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강렬한 응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작가의 응시력은 인간생활 속에서 사상을 그 산 정태로서 또다시 발견한다는 것이다. 즉 사상이 아직 추상되기 이전의 구상적인 양태에서 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작가들은 이 사실을 잊고 생활을, 즉 작품의 제재를 응시함으로써 그 속에 실현되어 있는 사상을 산 그대로 캐내려고 하지 않고는, 이미 생활에서 추상된 사상으로 생활을 규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생명을 갖추어 끊임없이 생성하는 생활은 그렇게 쉽사리 개념적 사상에 규격되지 않아 그곳에서 작품의 파탄이 왔다. 그리하여 사상과 생활이 서로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하여 있지 않고 작품 속에서 사상은 사상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각각 제대로 구르고 있었던 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 작가들은 이 사실을 얼마쯤 의식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비평가들이 조석으로 번개하여 제출하는 못 사상으로 생활을 규정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을 응시함으로써 그 속에서 산 사상을 캐내려는 노력을 하려고 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현상이 외면적으로는 작가들의, 더욱이 신진작가들의 비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면적인 현상이요, 내면적으로는 도리어 사상에 대한 욕망의 표현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판

어느 글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신진작가의 비평에 대한 무관심에 서 도리어 그들의 진보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작가들의, 더욱이 신진작가들의 생활 속에서 산 사상을 캐내려는 노력이 얼마만한 정도로 그들의 작품 속에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이 얼마만큼 그들의 작품 속에 결과하였는가를 2월호 잡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통하여 밝혀 보자. 이달에 발표된 작품으로는 김동리씨의 작품이 두 편, 김영수, 김진수, 박노갑, 정비석 제씨의 작품이 각각 한 편, 그리고 이광수씨의 작품이 한 편으로 그 대부분이 소위 신인으로 대접받는 분들의 작품이다.

전기(前記)의 작품들 중에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노력과 각성이 가장 뚜렷이 보이는 작품으로는 김동리씨의 <혼구(昏衢)>((인문평론))와 <동구 앞길>((문장))이었다. 나는 이 두 작품 속에서 이 작자의 작품 속의 생활과 그 생활을 실천하는 인물들의 전 비밀을 완전히 알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치근치근할 만큼 집착력 있는 눈과, 생활과, 인물을 그 근원적인 양상에서, 다시 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과의 접촉면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았다. 그리하여 이 작품 속의 인물과 생활에 관한 이 작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소개하는 강정우니, 송차상이니, 순녀니 하는 인물들과 마음속으로 사귀는데 아무런 불안도, 그리고 또 그가 보여주는 인생의 국면 속에 내 마음을 그대로 풀어 놓아 방랑시키는 데 별다른 껌연쩍은 마음도 느끼지 않았다. 강정우니, 송차상이니, 순녀의 성격도 뚜렷이 볼 수가 있고, 강정우의 현실의 체중에 깔려 신음하는 양심도, 송차상의 현실적인 생활철학도, 순녀의 연연한 모성애와 가련한 인종의 미도 명료히 이해할 수가 있다.

김진수씨의 <잔해>((조광))는 인간이 늘 그것에 속아 사는 아릇한 요

행심이며, 부부간의 애증을 그리려는 작품으로 영원한 인간성의 일면을 구상화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작품이기도 하였으나, 제재에 대한 응시력이 부족하였다.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이 작자가 봉우나 설이의 성격의 일면밖에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부부생활의 표면만 잠깐 들여다보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성격을 눈앞에 뚜렷이 그려볼 수도 없고 그들의 생활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봉우나 설이의 성격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보였고, 그들의 생활이 몇 가지로 분열되어 보였다. 예를 들면 남편을 맞아 아들일 날을 기다리는 설이와,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설이가 한 사람 같지가 않았다. 따라서 그의 그런 행동들 사이에도 성격적 통일이 없었다.

김영수씨의 <밤>((인문평론))은, <잔해>와 같이 인상이 혼란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인상이 <잔해>의 인상보다 비교적 통일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작품 속의 인물의 행동에 성격적 통일이 있어서 라는 것보다도 스토리가 단순한 때문일 것이다. 김영수씨는 이 작품 속에서 무슨 깊은 의미가 없는 시정사의 한 토막을 과히 힘들이지 않고 그려놓았을 뿐이다. 씨는 이 작품에서 생활의 깊은 의의를 찾으려는 데보다도 재미있게 묘사하려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한 듯한 느낌을 준다.

박노갑씨의 <무가>도 서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정사의 한 토막이다. 하기가 이 시정사에서 야박하고 교활한 세상의 일면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얼마든지 대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별다른 감명을 받지 못한다. 주제의 선택이 작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씨가 그 치밀한 묘사력으로 좀 더 무게 있고 깊이있는 제재를 모출하는 데 힘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작품

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비석씨의 <삼대>((인문평론))는 로슈코프의 「철학은 과거의 불행, 미래의 불행에서는 용이히 이긴다. 허나 현재의 불행은 항상 철학에게 이긴다」라는 진리를 실제의 생활로서 구현하려고 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이 사상이 작중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 속에 통일적으로 용해해 있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사상이 작중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통하여 성격 있는 정태에까지 구상화하지 못했다. 경세에게서 우리는 우울한 표정은 보았으나 그의 사상적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향세의 사상과 행동에도 통일성과 필연성이 부족했다. 향세의 행동은 사상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이 작자의 사상의 괴뢰였다. 나는 향세의 그림자는 볼 수가 있었어도 손으로 그의 육체를 만져볼 수는 없었다.

이 작품이 이와 같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김진수씨의 <잔해>에 있어서와 같이 제재에 대한 응시력이 부족한 데 있었다. 제재에 대할 때에는 작가의 눈은 뱀눈과 같아야 한다.

(《문장》, 2권 3호, 1940. 3. 1)